

과 淸涼山地區까지 踏査하리라 한다.

◎ 釋迦塔內發見舍利유리瓶의 破損

그 사이 佛國寺에 保管되어 오던 이 綠色硝子瓶은 지난해 十一月三日 僧侶의 不注意로 破損된 사실이 今年 一月初에 밝혀졌다.

이 舍利瓶은 金銅函中央의 銀盒 속에 安置되었던 것으로서 過去에 알려진 신라의 類品 중 가장 크고 完形의 것이었다. 十一月下旬 復元時에는 僧侶만의 손으로 模造品이 納塔되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두 개의 金銅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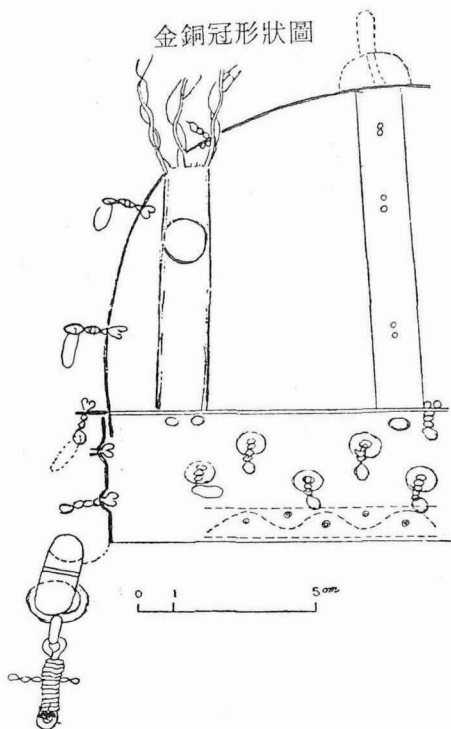
第八卷 第二號 通卷七十九號

梅 原 末 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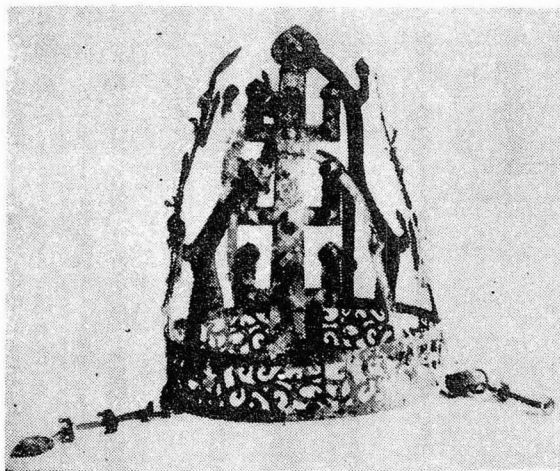
이 두 개의 冠帽은 모두 終戰前의 出土品임에 不拘하고 아직 世上에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다. 三國鼎立時代의 南鮮에서의 特色이 顯著한 冠帽의 新出土品에 대하여서는 아직된 까닭인지 本誌 其他에서의 紹介가 매우 적다. 요사히 나의 實見한 이 둘은 모두 作品으로서의 好例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래에 紹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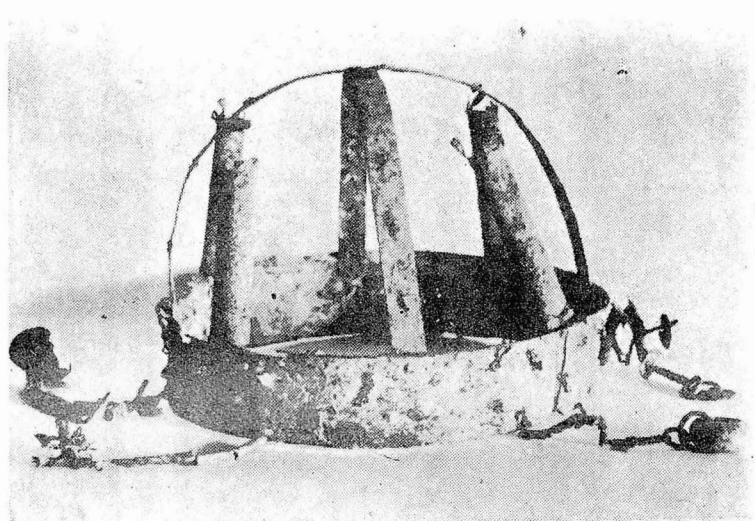
그 一方의 冠은 終戰前 京城에 在住하여 半島文物에 깊은 關心을 갖고 있던 故 伊東愼雄氏의 當時 蒐集品의 一로서 거의 出土 그대로의 鮮明한 靑綠銹로 덮여 있는 完好品이다.

下帶의 徑 一七·五cm 高二一·六cm의 이 冠은 型과 같이 周圍에 五



의 화려한 立擧가 있는 것으로서 後方의 둘(二)은 各各 體가 꼬부라졌다. 또 冠帶의 內側은 細帶二條를 十字狀으로 交叉하고 그 위에 辻金과 같은 飾金物을 달은 所謂 半球形의 帽體로서 그 作은 慶州 瑞鳳塚出土 金冠의 그것과 同様하다 (寫眞一參照) 但 이 冠에서 注意를 끄는 것은 그 中 幅 四cm 되는 周緣의 帶가 切





金の透彫라는 사실이다. 이透彫는 원래龍形에서脫化한진려渦紋化의 것으로서 各其의先端은 잘 꼬부라져서 纖細한趣態를 보이는 것이다. 右의透彫紋은有名한慶州金冠塚金冠의烏帽子와 近似한冠帽에表現되고 있는 것과 同系の紋樣인바 그에比한다면 形式化와 便化한 것이 눈에 띄인다.

冠帶左右에 있는垂下飾은太環을가운데 두고 길고 가는管과花蓋飾을 달은 것으로서 現在一

方이半쯤 缺損되고 있다. 그러나 作은 도리어 簡素한다.

其二는 一昨春 奈良의 玉林善太郎氏가 齋來한 것으로서 또한 靑綠鍔가 많고 土中古品인바 앞의冠과는 달리 缺損이 있다. 其의 全形을 알 수 있는 下方의 上邊이 折曲되어 있는 冠帶의 徑은 約十八cm 幅은 三・五cm 로서 그 內側에는 위에 辻金物樣의 裝飾이 있었던 形迹을 남긴 半球形의 十字帶의 帽部를 만든 것은 前者와 같다. 但이冠에서는 周緣의 立舉는 顯著히 相違되고 있다. 即 四方에 있는 이 立舉는 모두 上方이 缺損되고 있으나 薄板作의 가는筒形―그長約七cm―의 上方을

十條로 切振하여 花總狀으로 한 것이 珍貴하다. 그것이 二個의 鉤으로 帶에 留置되어 있다. 立舉로서의 意匠으로서 하나의 新例가 된다고 할 수 있다.

細長한 左右의 垂下飾은 殘缺되어 있는 위에 出土後의 恣意의 修補가 눈에 띄우나 細長한 그 垂飾은 원래 가는 針金作의 所謂花蓋를 가운데 놓은 것을 連結한 方式인데 一方에는 連結한 그것이 四個 남아 있다. 作은 앞의 完好한 冠帽의 것보다도 잘된 것으로 보인다.

(一九六七年一月三日)

蘭谷 宋炳華肖像畫

李 殷 昌

大田市史編纂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大田地方을 踏查하다가 大德郡山內面二沙里(舊公州牧山內面沙寒里)에서 蘭谷 宋炳華先生肖像畫를 調査할 수 있었다. 現今 그 後孫과 門人들이 先生의 生時의 講學處인 咏歸臺에 做華堂을 建立하여 奉安하고 있다. 이는 韓末의 肖像畫로서 또 그 畫員의 名聲으로서 그 肖像을 그리게 된 動機等으로 보아 參考가 될 만한 것이기에 紹介하고자 한다. 宋先生^①의 名은 炳華이요 字는 晦卿이며 號는 約齋 또 는 蘭谷이며 恩津人이다. 哲宗二年 壬子(西紀一八五二年)에 出生하여 栗谷・尤庵의 性理學과 禮文을 自勉하고 淵齋 宋秉璿^②과 相通하여 斥邪衛正의 運

